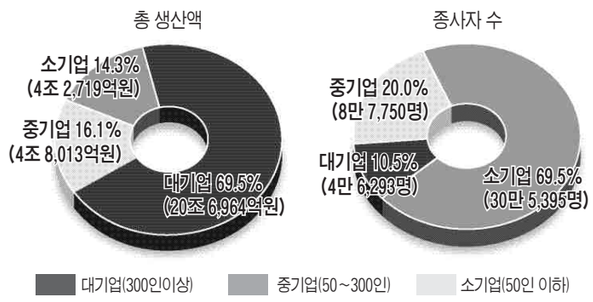
中企가 광주경제 '버팀목'

기업체 수 9,500곳 … 고용인원 40만명

작년 총생산액 9조 … 5년 새 33% 상승

대기업 70% 생산 증가 불구 고용 확대는 미미

■광주업체 규모별 총 생산액·종사자수 현황



최근 5년간 광주는 중소기업들이 경제규모 성장 및 고용창출을 견인하는 등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 중소기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일자리를 늘려 '고용없는 성장'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들과 대조를 이뤘다.

10일 광주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총 생산액은 9조732억원에 달한다. 이는 5년 전인 2003년(6조8천70억원)에 비해 33.3%(2조2천662억원) 늘어난 것으로, 중기업(고용인원 50~299명)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중기업은 총 생산액이 2003년 2조5천160억원에서 지난해 4조8천13억원으로 90.8%(2조2천853억원)나 늘었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세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기업 수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6년 현재 광주 중기업은 총 951곳으로, 5년 전(763곳)보다 24.6%(188곳)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광주 중기업 종사자들은 39만3천145명으로, 5년새 24.7%(1만7천372명)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소기업(고용인원 1~49명)도 꾸준히 고용을 늘리면서 지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총 종사자 수가 39만3천145명으로 확대됐다.

이같은 종사자 규모는 광주 전체 취업자(62만6천여명)의 62.3% 수준으로, 중소기업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내 취업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광주의 대기업(고용 300인 이상)은 같은 기간 생산액은 70% 가량 늘었지만 고용창출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광주 대기업들의 총 생산액은 20조6천964억원으로 5년새 69.0%(8조4천534억원)나 늘었다. 이는 광주 전체 생산액(29조7천696억원)의 69.5% 수준이지만, 생산급증에 따른 고용확대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광주의 대기업 종사자는 4만6천293명으로, 5년간 14.7%(5천921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중기업 일자리 증가폭(1만7천372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광주 전체 취업자의 7.3%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광주는 대기업의 수가 5년째 55곳에 머물러 있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및 기업유치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광주는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이 고용확대와 생산증가 등 지역경제의 주된 축을 담당했다"며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선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협, 제수용품 할인 판매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 임직원들이 9일 지역본부 정문에 개설한 '추석맞이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장터'에서 제수용품을 시중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광주본부는 또 12일까지 송정농협, 남광주농협, 광주농협 등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25개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할인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추석 연휴 수출입 물품 통관

광주세관, 특별 지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12~16일을 '추석연휴 수출입 물품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수출입업체 지원에 나선다.

광주세관은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해 수출물품의 적기선적 등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운송·선박·하역회사 등과 업무협조를 강화해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8~12일을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환급업무를 펼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자금난 中企 '워크아웃' 급증

경기침체·원자재가 급등 여파 2분기 245개사 94% ↑

원자재 가격급등과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경영난으로 채권단 주도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중소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보다는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에 치중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 신규 워크아웃 기업은 245개로 전 분기보다 94.4% 증가했으며 부도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한 기업은 53개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워크아웃 기업은 작년 4분기 187개에서 올해 1분기 126개로 감소했다가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2분기 들어 크게 늘어났다.

은행들은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기업에 상반기 1조4천72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만기연장이 86.4%를 차지했고 신규여신은 11.3%에 그쳤다.

작년 상반기 신규 여신비중 20.1%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며 분기별 신규 여신비중도 1분기 15.1%(969억 원)에서 2분기 8%(616억 원)로 크게 낮아졌다.

경기부진으로 대출부실을 우려한 은행들이 신규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 말 현재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기업은 1천286개로 상반기에 426개사가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133개사는 중단했다. /연합뉴스

나주시에 고품질 수돗물 공급

수자원公, 20년간 672억 투입 시설 현대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송기근)가 향후 20년 동안 672억원을 투입, 나주시민들에게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10일 나주시 이창동에서 김건호 사장과 신정훈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수도서비스센터 개소식을 갖고,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나주시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7월부터 나주시 지방상수도 시설을 인수받아 운영해왔다.

이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20년 동안 672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수도 시설 현대화 작업에 들어간다.

전체 423.9㎞의 30%에 달하는 노후관을 교체해 수질을 개선하고, 서비스센터 내에 통합운영시스템(GIS) 구축과 함께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13년까지 210억을 투입해 현재 66.5%의 유수율(流水率)을 80%까지 끌어올려 107억원에 달하는 누수량을 절감할 방침이다.

송기근 전남지역본부장은 "나주상수도 운영효율화 프로젝트는 나주시민들에게 고품질을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설개선비의 효과적인 조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시 생활폐기물 자원화 '성큼'

市-대우건설 '에너지타운 조성' 투자 양해각서

광주시가 단순 매립 처리되고 있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자원화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온 '에코-폐기물 에너지타운 조성'이 시와 (주)대우건설간 투자양해각서(MOU)로 조기 가시화될 전망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서종욱 (주)대우건설 대표이사와 '에코-폐기물 에너지타운 조성' 제안서 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주)대우건설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설의 관리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주)대우건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국가 생활폐기물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제안내용에 대한 적격성 조사와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제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3자 공모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 2010년 착공해 2012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에코-폐기물 에너지타운'은 국비 520억원을 포함 모두 1천6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기물 전처리 시설, 고형연료 전용 보일러 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자원화 시설, 생태숲 및 교육·홍보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메르세데스 벤츠 광주 신성자동차

소촌공단에 서비스센터 기공

메르세데스 벤츠 광주 신성자동차(대표 김대익)가 고객에 대한 감동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난 9일 광주시 광산구 소촌공단내에 광주·전남 서비스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기공식에는 김대익 광주 신성자동차 대표와 윤성수 사장, 광주은행 지역본부 남혁우 본부장 등을 비롯해 100여명의 지역민들이 참석했다.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12월말 완공예정인 광주·전남 서비스센터는 대지 1천650㎡, 연건평 1천588㎡에 3층 건물로 지어진다.

김대익 대표는 "서비스센터는 메카닉·판금·도장·차량검사 등 전 공정을 첨단시설로 갖춰 벤츠 자동차 고객들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9년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의 공식딜러로 영업을 시작한 광주 신성자동차는 지난해 판매대수 140대와 매출 145억원에 이어 올해 160대, 18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센터 준공을 계기로 연간 200대, 300억원 규모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2008년 전라남도 문화산업육성 지원사업 공고